일본 퇴직연금시장 관련 제도와 구조변화

2015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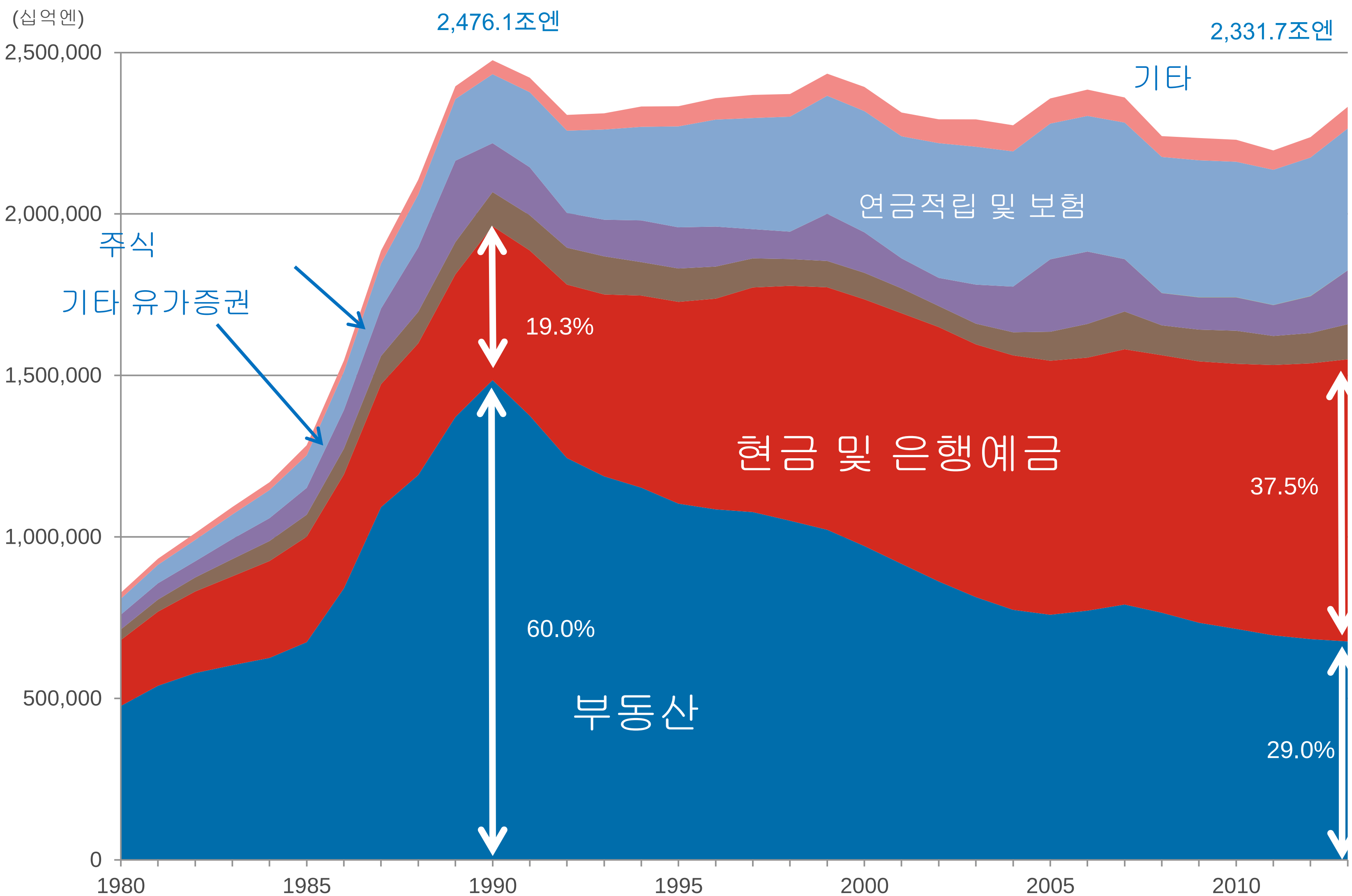
사토시 노지리
(Satoshi Nojiri)

피델리티 일본
투자자 교육연구소 소장

차례

Fidelity™ WORLDWIDE INVESTMENT

일본 가계의 자산배분



자료: SNA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델리티 투자 연구소가 계산

자산축적의 부족

44.8%는 "아직 자산을 모으지 못했다"고 응답함. "모은 자산 없음"과 "1천만엔 이상 모음" 사이의 격차 확대

은퇴 후 삶을 위한 자산	평균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20대	30대	40대	50대
필요액 (A)	2952.8	2747.3	3119.3	3308.3	3246.1	2333.6	2742.3	2880.2	2791.2
축적액 (B)	598.7	335.0	487.0	686.8	1039.2	229.7	376.4	543.1	924.0
준비율 (=B/A)	20.3%	12.2%	15.6%	20.8%	32.0%	9.8%	13.7%	18.9%	33.1%
모은 자산 0엔	44.8%	56.9%	48.1%	43.0%	32.1%	63.3%	50.5%	42.4%	28.6%
1천만엔 이상 모음	15.7%	7.6%	12.2%	18.3%	28.2%	4.9%	9.3%	14.6%	26.1%

자료: 피델리티 투자자 교육 연구소. 3만 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은퇴 준비도 및 투자 행동에 대한 서베이 실시(2014.3)

은퇴자 중 30%는 퇴직금을 수령 받은 은행에 그대로 남겨둠

차트 20: 퇴직 일시금 중 투자에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어떻게 했나?

	2015	2011	2008
	8,630명	8,018명	1,000명
퇴직금을 수령했던 은행에 그대로 두었다.	31.0%	30.3%	34.5%
집에서 가까운 은행으로 옮겼다.	19.2%	13.7%	20.5%
예금금리가 높은 은행에 예금했다.	13.1%	19.0%	18.5%
더 나은 서비스와 조언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옮겼다.	7.1%	7.5%	9.6%
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옮겼다.	6.1%	5.9%	6.6%
기타	4.0%	4.1%	4.2%
모두 소비해서 남아 있는 자금이 없다.	19.6%	19.5%	6.1%

차례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은퇴자산의 규모는 적음

'은퇴 자산'의 유형별 규모

–공적연금;	$ 2,300 bill	(72%)
–기업형 DB;	$ 820 bill	(25%)
–기업형/개인형 DC;	$ 85 bill	(3%)

- 54% 원금보장형 상품
- 46% 펀드
  - 액티브 펀드 30%
  - 패시브 펀드 70%

(참고자료)

• 투자신탁(펀드);	$ 700 bill (as of Dec. 2013)
• 가계 보유 주식;	$ 1,300 bill (as of Dec. 2013)
• 가계 보유 현금/예금;	$ 7,280 bill (as of Dec. 2013)

Fidelity WORLDWIDE INVESTMENT

일본 퇴직연금 시장의 3대 주요 트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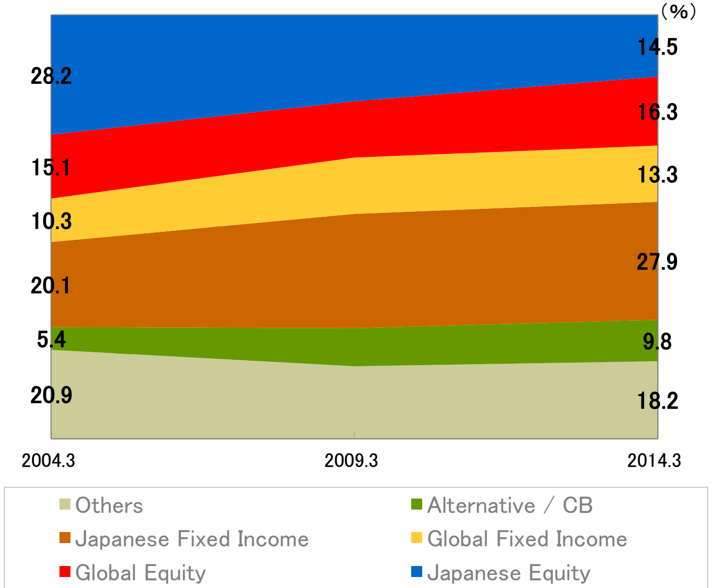
- 공적연금에서 사적연금으로 (글로벌 트랜드)
- DB에서 DC로 (글로벌 트랜드)
- 복잡한 연금체계에서 단순한 연금체계로 (일본의 트랜드)

	연금자산 in 2013	공적 연금	사적 연금	DC	DB
미국	$18,878 billion	28%	72%	58%	42%
영국	$3,263 billion	12%	88%	28%	72%
일본	$3,236 billion	71%	29%	3%	97%

자료: Towers Watson, Global Pension Asset Study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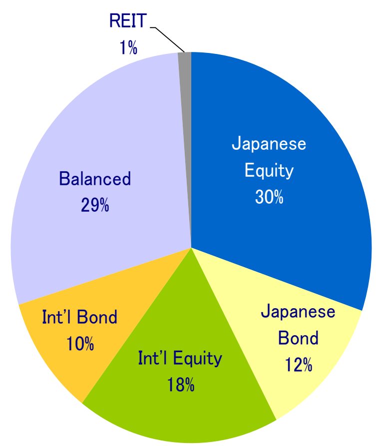
퇴직연금별 자산배분 현황

【기업 연금 – 자산배분】 Total Asset : $821 b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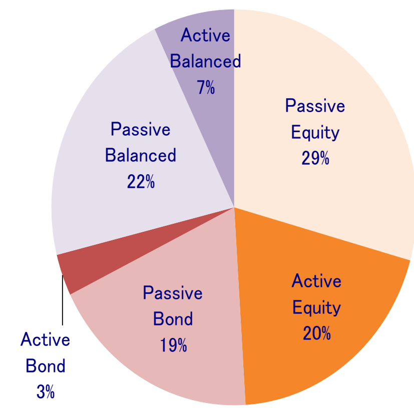


【DC 펀드 – 자산배분】 Total Asset : $39 b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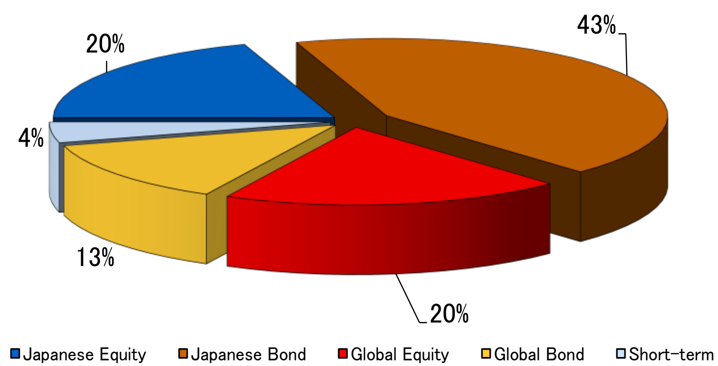
DC 펀드 자산구성



DC 펀드 자산구성(액티브/패시브)



【GPIF – 자산배분】 Total Asset : $1,101 b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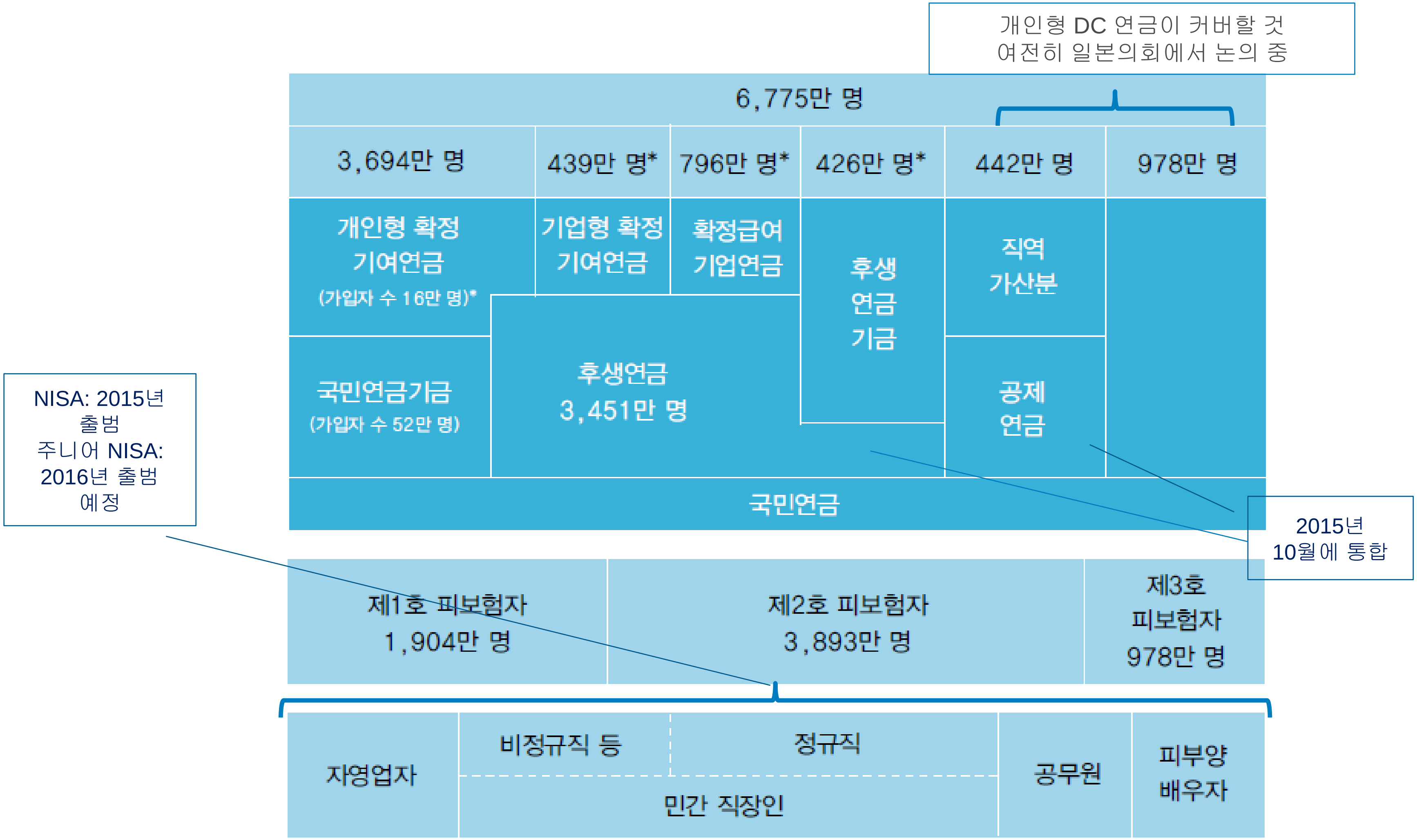


Source: MHLW, NRI Fundmark, Nenkin Joho, FIL Japan

Source: GPIF, PFA, Nenkin Joho

Fidelity WORLDWIDE INVESTMENT

연금제도의 체계



※*는 2013년 3월 말 시점, 그 외에는 2012년 3월 말 시점. (출처: 후생노동성 '제1회 사회보장심의회 기업연금부회, 2013년 10월 29일 자 자료 3'을 피델리티 퇴직·투자 교육 연구소에서 가필 수정)

차례

DC 제도의 변화

- ## 상품군과 디폴트 옵션 관련 규정 검토 및 개정
  (공표 후 2년 이내 정부의 발효일자 지정)

  ✓ 서로 다른 위험/수익 성향을 가진 3개 이상의 투자/예금 상품을 제공하도록 규정 (현재는 최소한 1개 이상의 원금 보장 상품을 포함한 3개 상품 제공)

  ✓ 장기 은퇴설계에 적절한 상품을 DC 디폴트 옵션으로 하도록 규정*

  * 분산된 멀티에셋 상품, 목표연도 펀드, 혼합형 펀드 등이 해당, 자세한 것은 추후 결정.

- ## DC 상품군을 더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
  (공표 후 2년 이내 정부의 발효일자 지정)

  ✓ 상품 라인업에서 DC 상품을 삭제할 때 노조 혹은 종업원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 (현재는 삭제되는 상품의 모든 가입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 사실상 불가능)

- ## 투자/생애설계에 대한 지속적 교육 규정 강화
  (공표 후 2년 이내 내각의 발효일자 지정)

현재	
최초 교육	노력 의무
지속적 교육	**고려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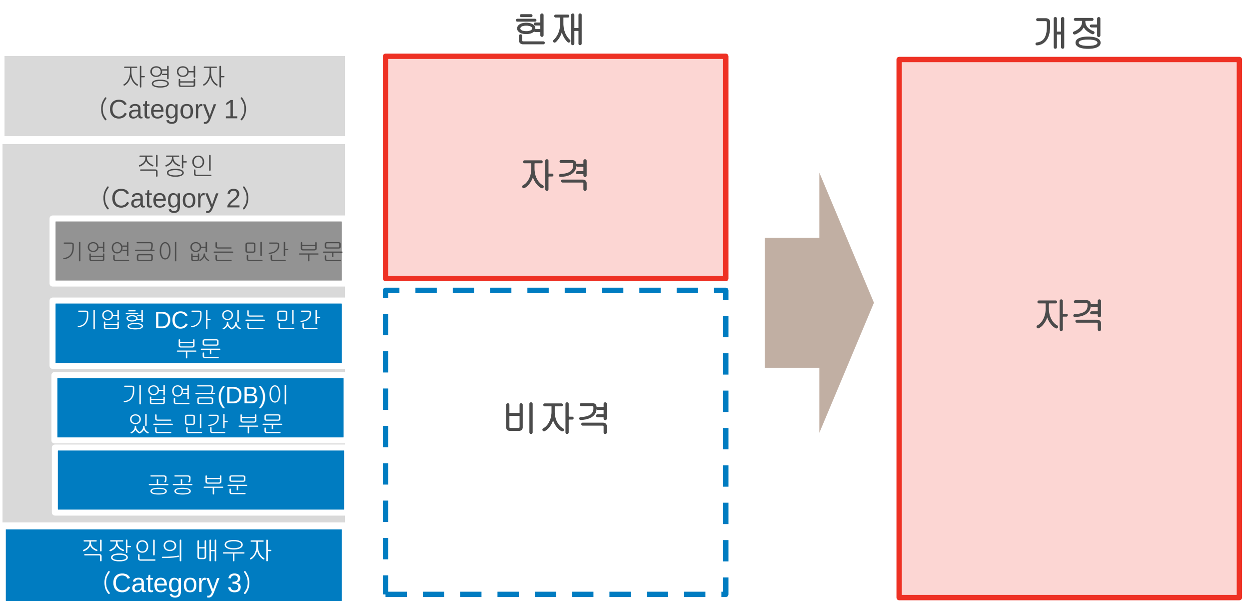
→

개정	
최초 교육	노력 의무
지속적 교육	**노력 의무**

DC 제도의 변화

- 가입자격의 확대 - 개인형 DC(2017년 1월 1일부터)
  - ✓ 비근로 배우자, 기업연금(DB/기업형 DC)이 있는 직장인,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개인형 DC 가입자격 부여(일정 조건 하)
  - ✓ 현재 기업형 DC 가입자는 아래 조건 하에서만 개인형 DC 가입 자격:
    - 기업형 DC를 통해 매칭 기여를 하지 않을 것
    - 기업형 DC 약관에 기업형 DC 가입자가 개인형 DC에도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명시된 경우

<개인형 DC의 가입자격>



DC 제도의 변화

● 세금 공제 기여 한도의 재조정 – 개인형 DC

(2017년 1월 1일 시행)

✓ 개인형 DC 가입자격의 확대에 따라, 세금공제 기여 한도가 아래와 같이 조정

<개인형 DC 기여금 한도>

구분		현재	개정
자영업자 (Category 1)		JPY68K ($570) /m *JPY816K ($6.8K) /y*	*JPY816K ($6.8K) /y*
직장인 (Category 2)	기업연금이 없는 민간 부문	JPY23K ($190) /m *JPY276K ($2.3K) /y*	*JPY276K ($2.3K) /y*
	기업형 DC가 있는 민간 부문	비자격	*JPY240K ($2.0K) /y*
	기업형 DC가 있는 민간 부문	비자격	*JPY144K ($1.2K) /y*
	기업형 DC와 DB가 모두 있는 민간 부문	비자격	*JPY144K ($1.2K) /y*
	공공 부문	비자격	*JPY144K ($1.2K) /y*
직장인의 배우자 (Category 3)		비자격	*JPY276K ($2.3K) /y*

<기업형 DC 기여금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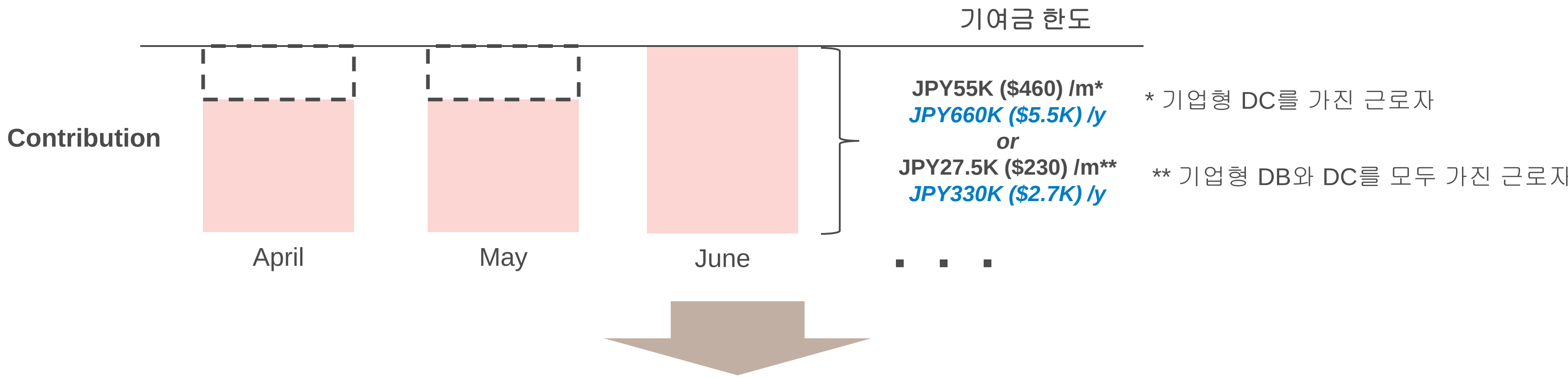
Employed Workers in Private Sector	현재	개정
With corp. pension (DC only)	JPY55K ($460) /m *JPY660K ($5.5K) /y*	*JPY660K ($5.5K) /y*
With corp. pension (DC only) **+ Individual DC**		*JPY420K ($3.5K) /y*
With corp. pension (DB&DC)	JPY27.5K ($230) /m *JPY330K ($2.7K) /y*	*JPY330K ($2.7K) /y*
With corp. pension (DB&DC) **+ Individual DC**		*JPY186K ($1.5K) /y*

기업형 DC의 총 기여금 한도는 불변

DC 제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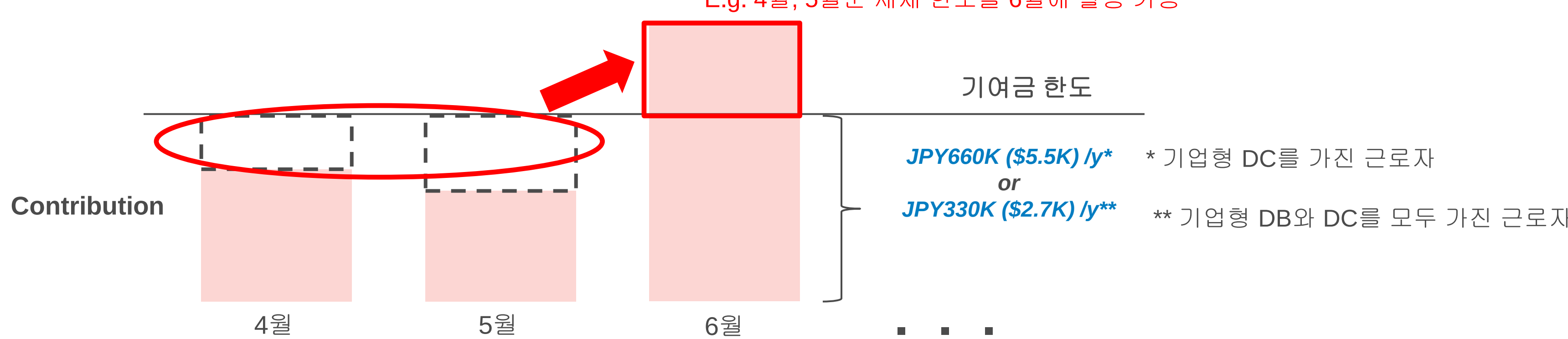
- 기여금 한도 단위를 월간에서 연간으로 변경
  (2017년 1월 1일 시행)
  - ✓ 세제 혜택 한도를 더 유용하게 활용 가능

<현재 : 월 기준>



<개정 : 연 기준>

E.g. 4월, 5월분 세제 한도를 6월에 활용 가능



Fidelity WORLDWIDE INVESTMENT

DC 제도의 변화

- 사적 연금 내에서의 이동성 확대

(공표 후 2년 이내 정부의 발효일자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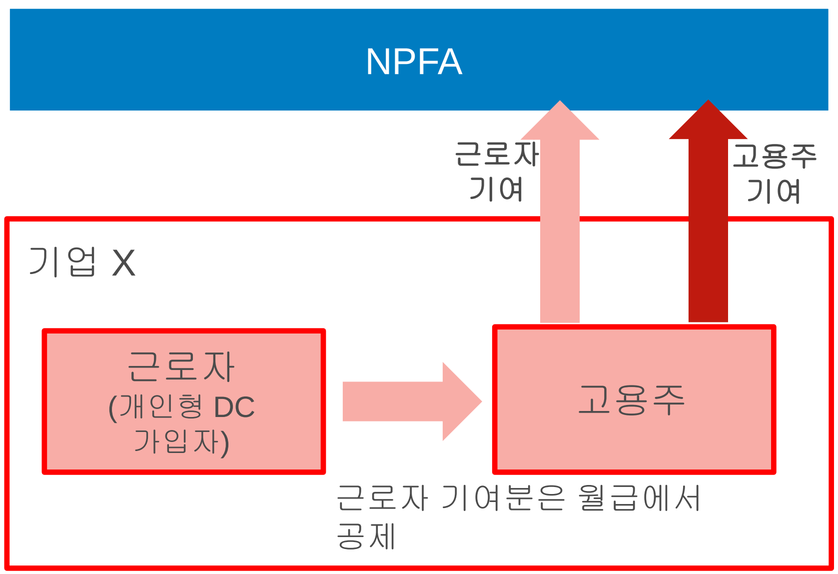
To					
From		DB	기업형 DC	개인형 DC	SERAMA*
	DB	○	○	○	× ⇒ ○
	기업형 DC	× ⇒ ○	○	○	× ⇒ ○
	개인형 DC	× ⇒ ○	○		×
	SERAMA*	× ⇒ ○	× ⇒ ○	×	○

SERMA*: Smaller Enterprise Retirement Allowance Mutual Aid

DC 제도의 변화

-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형 DC에 대한 고용주의 매칭방식 기여금
  (공표 후 2년 이내 정부의 발효일자 지정)
  - ✓ 개인형 DC 가입 근로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 ✓ DC 커버리지 증가 가능성

<개인형 DC – 중소기업 근로자 (매칭)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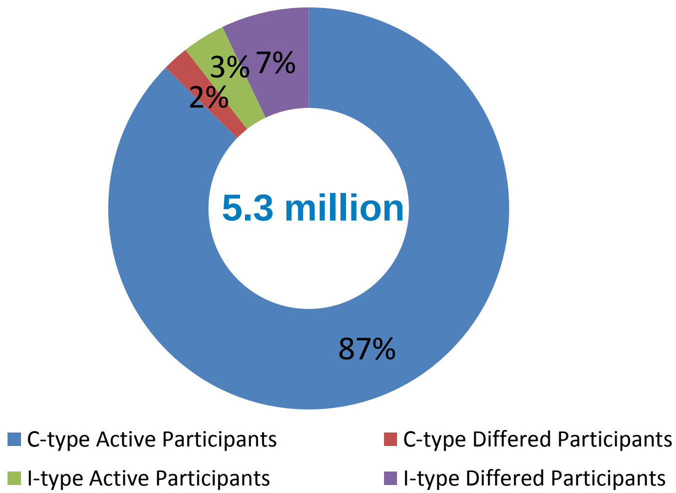
<후생노동성 제안안>

자격	✓ 100인 이하 근로자 사업장만 해당
기여분	✓ 근로자와 고용주의 기여분 합은 전체 개인형 DC의 기여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절차	✓ 노조의 동의, 범위 규정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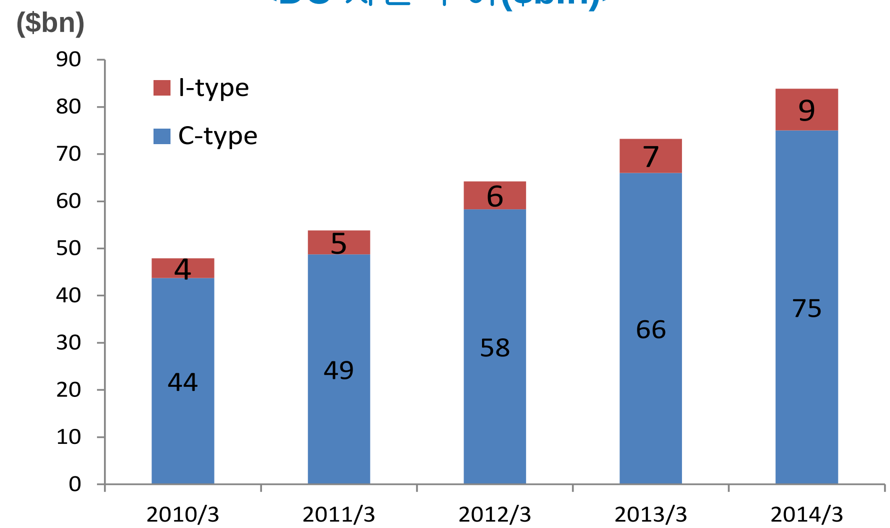
첨부: 기업형 DC와 개인형 DC의 현황

<DC 가입자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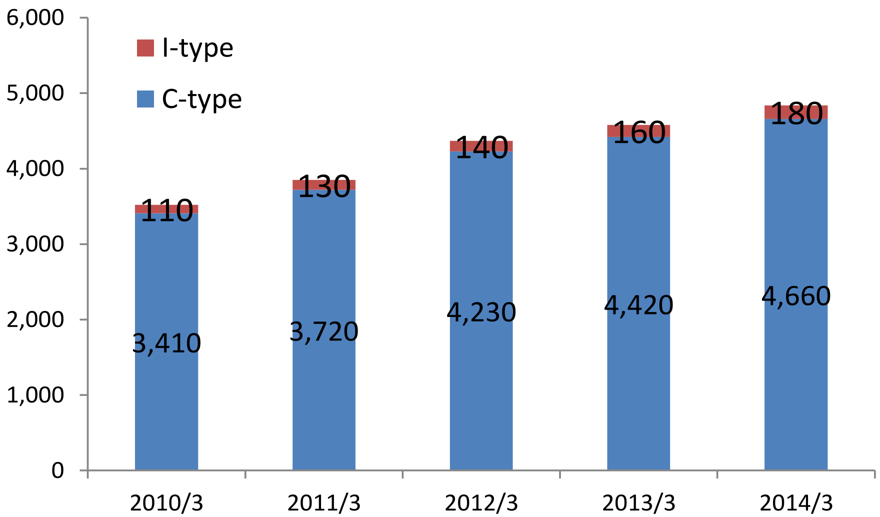
as of end of Mar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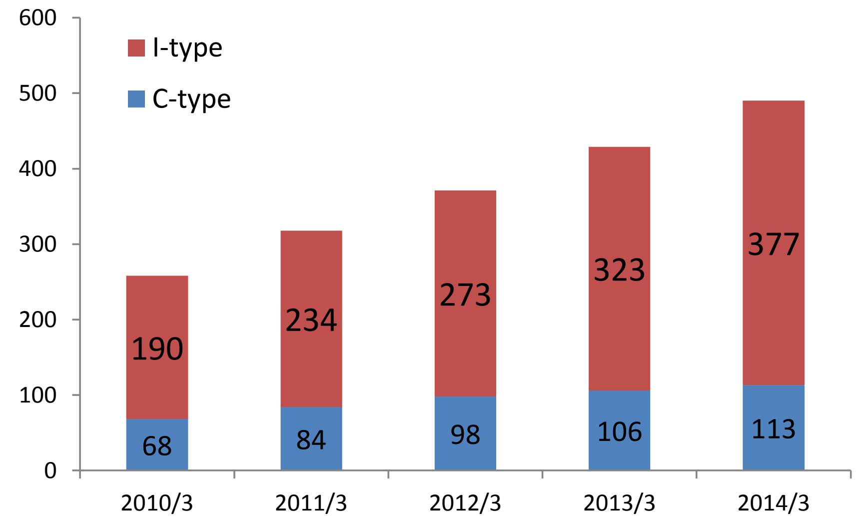
<DC 자산 추이($bln)>



<실제 가입자 수 (단위: 천)>



<유보 가입자 수 (단위: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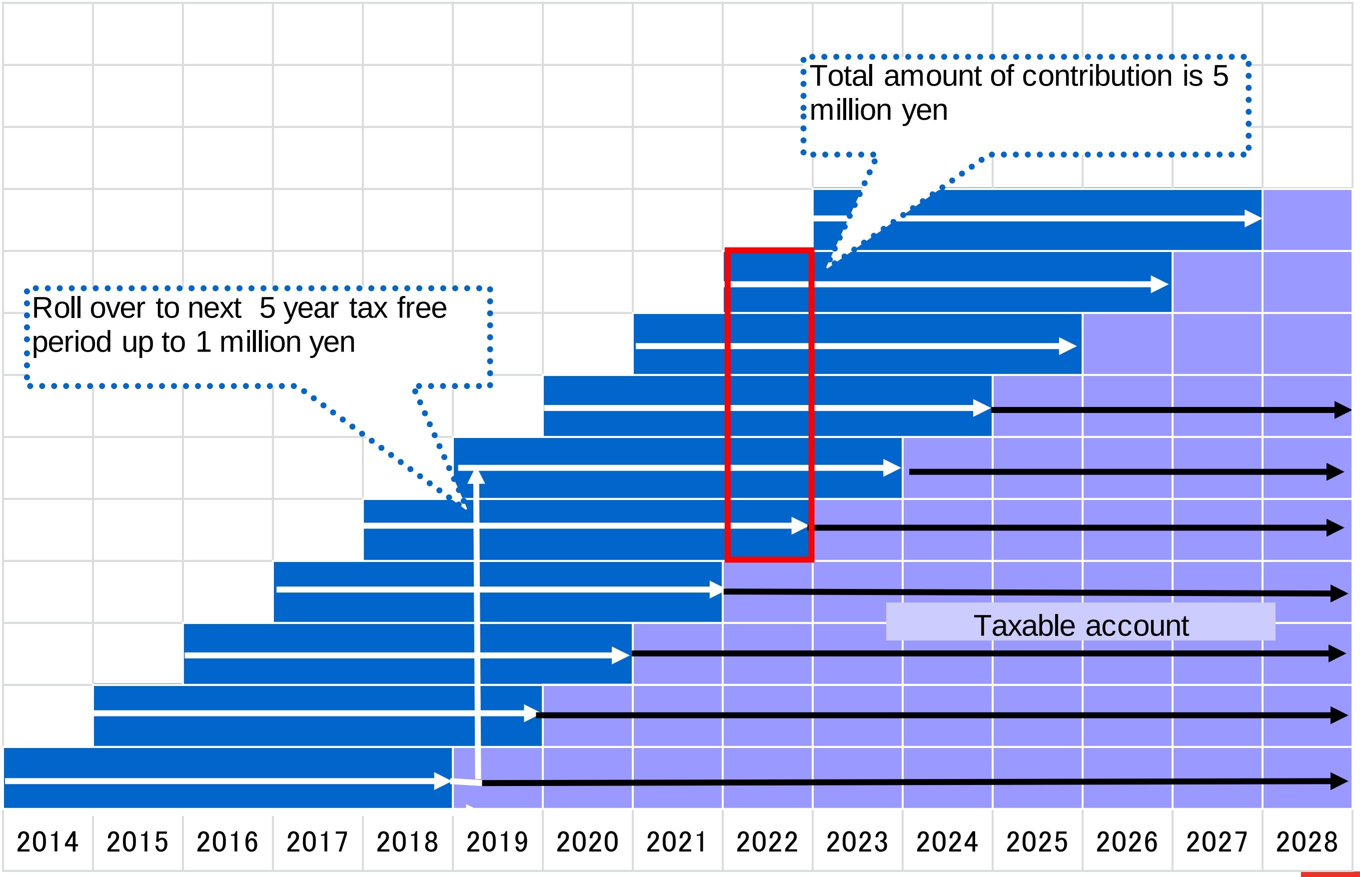
Fidelity
WORLDWIDE INVESTMENT

차례

Fidelity WORLDWIDE INVESTMENT

NISA, 2014년 시행

- 10년 예정(2014~2023)
- 비과세 기간 5년
- 연간 1백만엔 상한액



NISA, 첫 해 성공적(830만 계좌, 3조엔), 하지만 60대 이상에 집중

	2014년 12월 말 기준(잠정치)		2014년 6월 말 기준		
		6월말 이후 증가율 %	717 institutions		3월말 이후 증가율 %
계좌 수	8,335,464	14.6%	7,273,667	100.0%	11.8%
연령별					
>80 in age			579,642	8.0%	10.3%
70s			1,613,975	22.2%	8.2%
60s			2,048,123	28.2%	9.3%
50s			1,224,872	16.8%	13.5%
40s			958,389	13.2%	16.4%
30s			595,795	8.2%	18.7%
20s			252,871	3.5%	20.9%
(10 thousands yen)					
총 금액	297,970,000	90.6%	156,312,226	100.0%	55.8%
주식			49,491,494	31.7%	35.8%
펀드			103,959,973	66.5%	67.4%
ETF			1,402,979	0.9%	54.1%
REIT			1,457,785	0.9%	69.1%
연령 별					
>80 in age			10,473,487	6.7%	
70s			37,943,633	24.3%	
60s			50,810,771	32.5%	
50s			25,622,804	16.4%	
40s			17,218,353	11.0%	
30s			10,826,185	6.9%	
20s			3,416,998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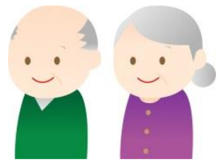
Source) FSA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Workplace ISA, 주니어 NISA

-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 2014년 1월 출범
  - 이후 12개월간 830만 계좌 개설
  - 그러나 실제로 입금한 비율은 50% 하회
  - 계좌 보유자 중 60%는 60세 이상
  - ‘5년 비과세’ 및 ‘최대 투자기간 10년’은 개선 필요
- Workplace ISA
  - 신설 세제가 아니고 기존 NISA를 적용한 제도
  - 증권사나 보험사를 방문하여 재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직장인을 대상으로 NISA를 활용
  - 그러나 기업들은 직장 내 개인투자에 대해 여전히 우려
  - 일본증권업협회(JSDA)가 2015년 1월에 직장 NISA 지침 발표
- 주니어 NISA
  - 3월 말에 일본의회를 통과했으며, 2016년부터 시작될 예정
  - 20세 미만 자녀가 부모 관리하에 NISA계좌 개설 가능하며 부모, 조부모 등의 명의로 투자
  - 부모의 자녀 학비 마련에 도움. 부모 부담 줄여 소비 부양. 노인 세대에서 젊은 세대로 자산 이동.

주니어 NISA 2016년 시행 예정

- 연 한도 80십만 엔
- 비과세 기간 5년
- 8년 예정(2016-2023)



부모, 조부모 등에 의한 가입

18세 이전 인출 시 페널티

20세에 성인 NISA로 이관 가능

주니어 NISA

성인 NISA

0 years old

18 years old

20 years old

부모가 관리하는 자녀 계좌

<첨부>

아베노믹스로 인해 은퇴자들의 투자행동에 변화가 생겼는가?
:퇴직 일시금을 수령한 은퇴자 8,630명에 대한 투자행동 조사

서베이 참가자 분포

- 서베이 실행기간: 2015.1.29~2015.2.10
- 서베이 실행방법: 온라인 조사
- 참가자: 퇴직 일시금을 수령한 60~65세의 퇴직자 8,630명 (남자 7,946명, 여자 684명)

연령집단	**총** **8630**	**60세** **1,222**	**61세** **1,333**	**62세** **1,362**	**63세** **1,454**	**64세** **1,557**	**65세** **1,702**	
직장	총계 8630	회사원 6,925	공무원 1,705					
퇴직전 소득	총 8630	3백만엔 미만 413	3~5백만엔 1,207	5~8백만엔 2,936	8~10백만엔 2,243	10~15백만엔 1,490	15~20백만엔 220	20백만엔 121

자산축적은 여전히 우려스러움

1/4은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은퇴자산 축적전략으로 "자산관리"를 꼽은 응답자는 8%를 하회함.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가?

		합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20대	30대	40대	50대
'투자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		27.3	25.6	36.4	34.5	36.7	9.5	16.4	20.2	26.9
은퇴자산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은? (%)	능동적인 자산운용	7.7	8.9	11.7	9.9	10.0	3.2	4.2	4.0	5.6
	계획적인 저축	13.8	15.4	16.3	13.2	12.8	13.0	14.1	13.1	12.0
	할 수 있는 만큼 저축	29.4	25.6	27.8	27.8	29.7	26.0	30.2	32.5	35.9
	아무 것도 하지 않음	49.1	50.0	44.2	49.1	47.4	57.9	51.5	50.4	46.6

자료: 피델리티 투자자 교육 연구소. 3만 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은퇴 준비도 및 투자 행동에 대한 서베이 실시(2014.3)

자산축적은 여전히 우려스러움

20~30대 남성은 FX 마진거래에 투자하는 경향

		일본 주식	일본 주식 펀드	월지급식 펀드	외화 예금	해외 주식 펀드	FX 마진거래	일본 채권	기타 펀드	해외 채권	해외 주식	부동산	변액 연금	기타
	합 (n=8868)	66.7	22.0	17.8	16.8	16.7	14.7	13.4	8.5	8.3	7.6	5.3	3.3	5.9
성별	남성 (n=6252)	71.0	22.4	15.4	16.3	15.9	17.5	13.0	8.5	7.5	7.8	5.6	3.1	6.5
	여성 (n=2616)	56.4	21.1	23.7	18.0	18.7	8.0	14.6	8.6	10.1	7.1	4.6	3.9	4.4
성별/연령	남성/20대 (n=824)	61.3	18.1	11.5	16.7	13.7	22.6	12.9	8.3	6.4	9.5	3.4	1.9	10.2
	남성/30대 (n=1899)	68.9	20.9	13.5	17.1	16.2	22.2	11.9	8.3	7.1	7.7	3.9	2.8	6.3
	남성/40대 (n=1848)	71.8	23.5	17.2	17.6	17.7	17.3	14.6	9.7	7.8	7.7	5.8	3.7	6.2
	남성/50대 (n=1681)	77.3	24.9	17.4	13.7	14.7	9.9	12.4	7.6	8.1	7.0	8.4	3.2	5.1
	여성/20대 (n=281)	51.6	16.4	13.5	12.1	14.6	12.1	10.7	3.9	5.7	8.5	3.2	2.1	9.6
	여성/30대 (n=610)	51.3	20.3	17.2	20.8	17.9	9.7	15.9	10.2	6.1	6.4	4.1	3.3	5.4
	여성/40대 (n=823)	57.8	22.4	23.5	21.0	19.2	8.3	14.2	9.6	12.5	7.8	3.8	4.1	3.4
	여성/50대 (n=902)	60.1	22.1	31.4	15.1	20.0	5.2	15.3	8.1	12.0	6.4	6.2	4.8	3.0

자료: 피델리티 투자자 교육 연구소. 3만 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은퇴 준비도 및 투자 행동에 대한 서베이 실시(2014.3)

은퇴자 중 97%는 퇴직금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일시금 수령을 선택함. 2/3는 60세에 은퇴함.

차트 1: 퇴직금 수령 형태 (단위: 명, %)

	2015년 서베이		2011년 서베이	
	응답자	%	응답자	%
전액 일시금 수령	5,504	63.8%	4,768	59.5%
일시금 및 연금	2,869	33.2%	3,010	37.5%
전액 연금 수령	257	3.0%	240	3.0%
총계	8,630	100.0%	8,018	100.0%

차트 2: 은퇴 연령 (단위: 명, %)

	2015년 서베이		2011년 서베이	
	응답자	%	응답자	%
54세 이하	621	7.2%	532	6.6%
55세	406	4.7%	475	5.9%
56세	149	1.7%	250	3.1%
57세	230	2.7%	269	3.4%
58세	336	3.9%	420	5.2%
59세	331	3.8%	332	4.1%
60세	5,615	65.1%	5,016	62.6%
61세	275	3.2%	270	3.4%
62세	230	2.7%	189	2.4%
63세	161	1.9%	178	2.2%
64세	101	1.2%	52	0.6%
65세	176	2.0%	35	0.4%
합계	8,630	100.0%	8,018	100.0%

자료: 피델리티 투자자 교육 연구소, Retirees Survey in 2015 and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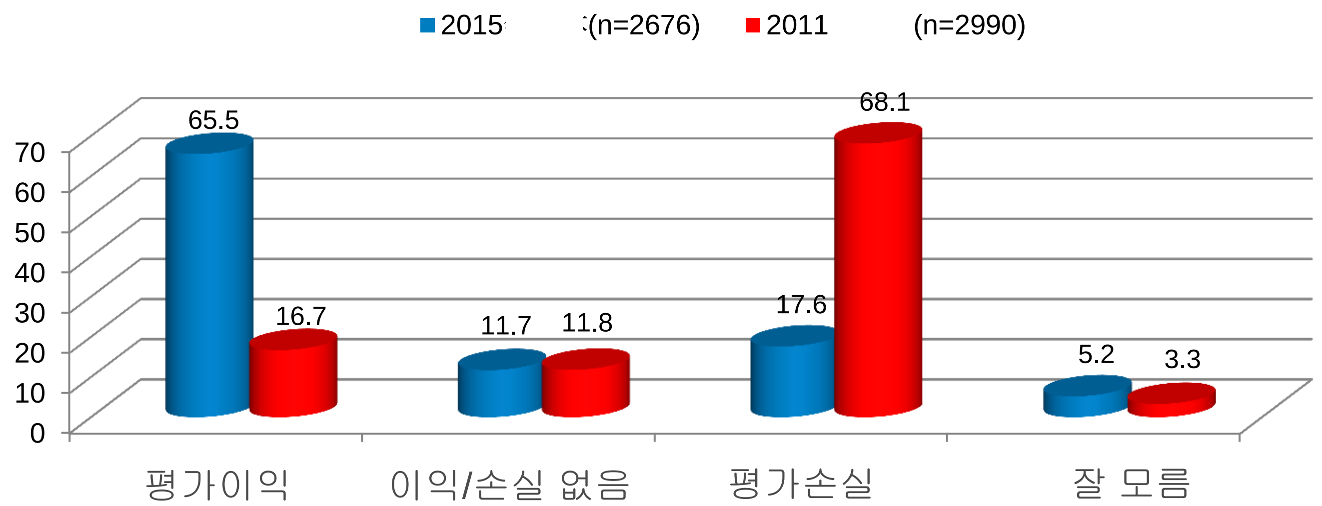
퇴직 일시금 평균액수 1,700만엔

차트 3: 퇴직 일시금 수령액 분포 (단위: %, 명, 만엔)

퇴직 일시금 수령액	2015년 서베이			2011년 서베이		
	합계	회사원	공무원	합계	회사원	공무원
500만엔 미만	17.3%	21.2%	2.0%	14.1%	16.9%	1..2%
500~1,000만엔	12.9%	15.7%	2.0%	12.6%	15.0%	1.6%
1,000~1,500만엔	13.1%	15.4%	4.0%	12.8%	15.0%	2.9%
1,500~2,000만엔	14.4%	15.7%	9.6%	14.5%	16.0%	7.3%
2,000~2,500만엔	16.7%	13.2%	30.5%	16.2%	14.9%	21.9%
2,500~3,000만엔	15.8%	9.1%	42.6%	17.4%	10.6%	48.2%
3,000~3,500만엔	6.9%	6.5%	8.3%	9.2%	7.8%	15.4%
4,000~5,000만엔	1.5%	1.7%	0.6%	2.2%	2.4%	0.9%
5,000만엔 초과	1.3%	1.5%	0.4%	1.2%	1.3%	0.6%
응답자	8,373	6,682	1,691	7,778	6,372	1,406
평균액수	1,746.9	1,572.0	2,438.1	1,873.5	1,701.5	2,6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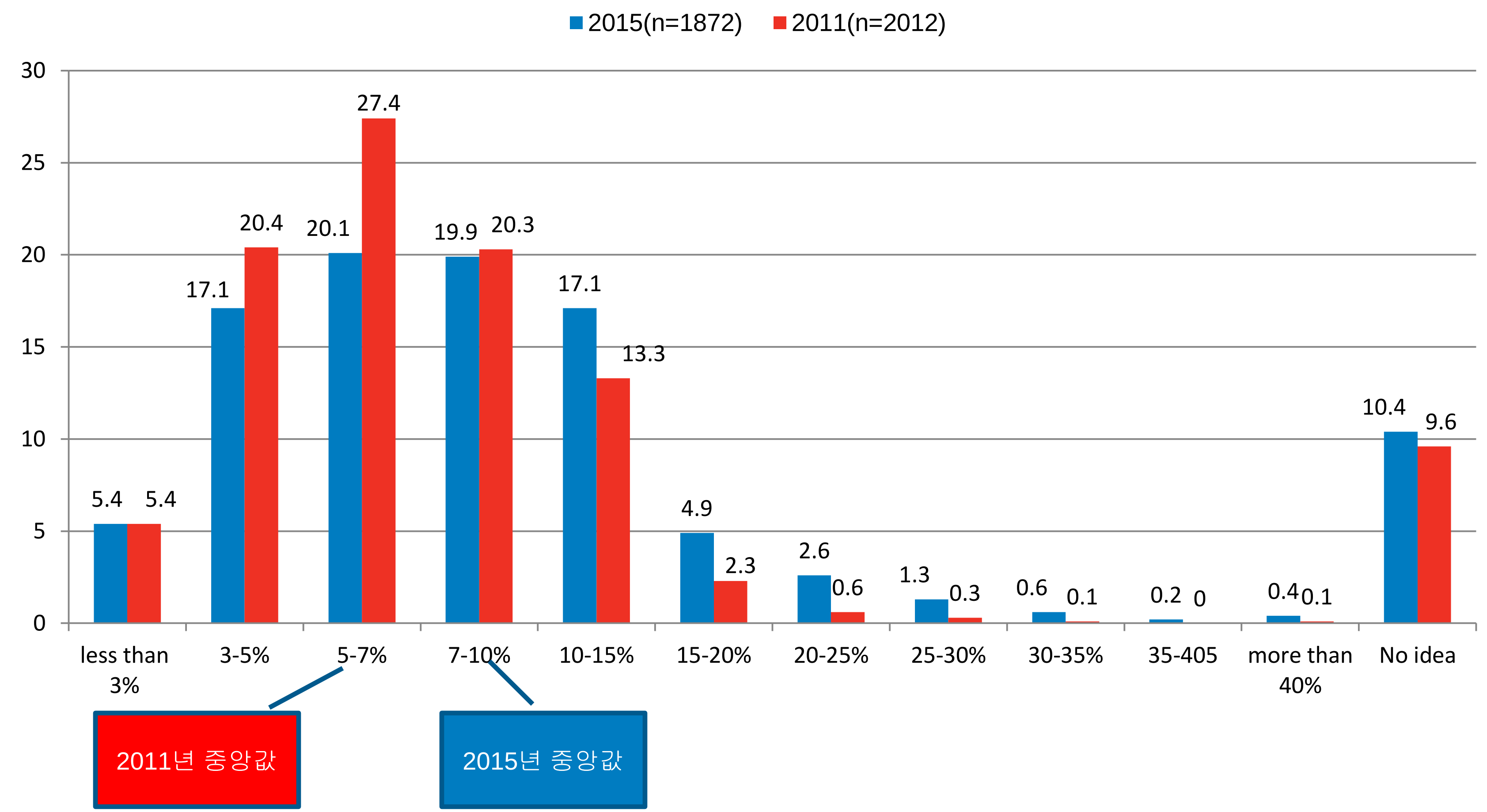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시장이 상승함에 따라 65.5%의 은퇴자가 2015년에 평가이익을 기록함. 2011년에는 68.1%가 평가손실을 기록한 바 있음.

차트 12 : 전년말 기준 평가이익/손실(단위: %)



예상수익률도 상승

차트 13: 현재 투자하고 있는 투자신탁(펀드)에 대한 예상수익률 (단위: %)



총 은퇴자 대비 현재 투자 중인 은퇴자 비율이 하락 중

차트 14: 퇴직 일시금으로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은퇴자의 비율

	2015년 서베이(평균 37.3%)		2011년 서베이(평균 31.0%)	
	응답자	%	응답자	%
2004	1431*	40.0%	–	–
2005	593	43.0%	–	–
2006	835	44.2%	–	–
2007	1175	41.0%	–	–
2008	1247	40.6%	1533*	32.6%
2009	1248	32.5%	699	33.2%
2010	1206	28.3%	1334	33.7%
2011	43	11.6%	1089	33.7%
2012	–	–	1198	33.3%
2013	–	–	1109	28.9%
2014	–	–	1333	26.7%
2015	–	–	78	20.5%

은퇴자금 사용에는 큰 변화가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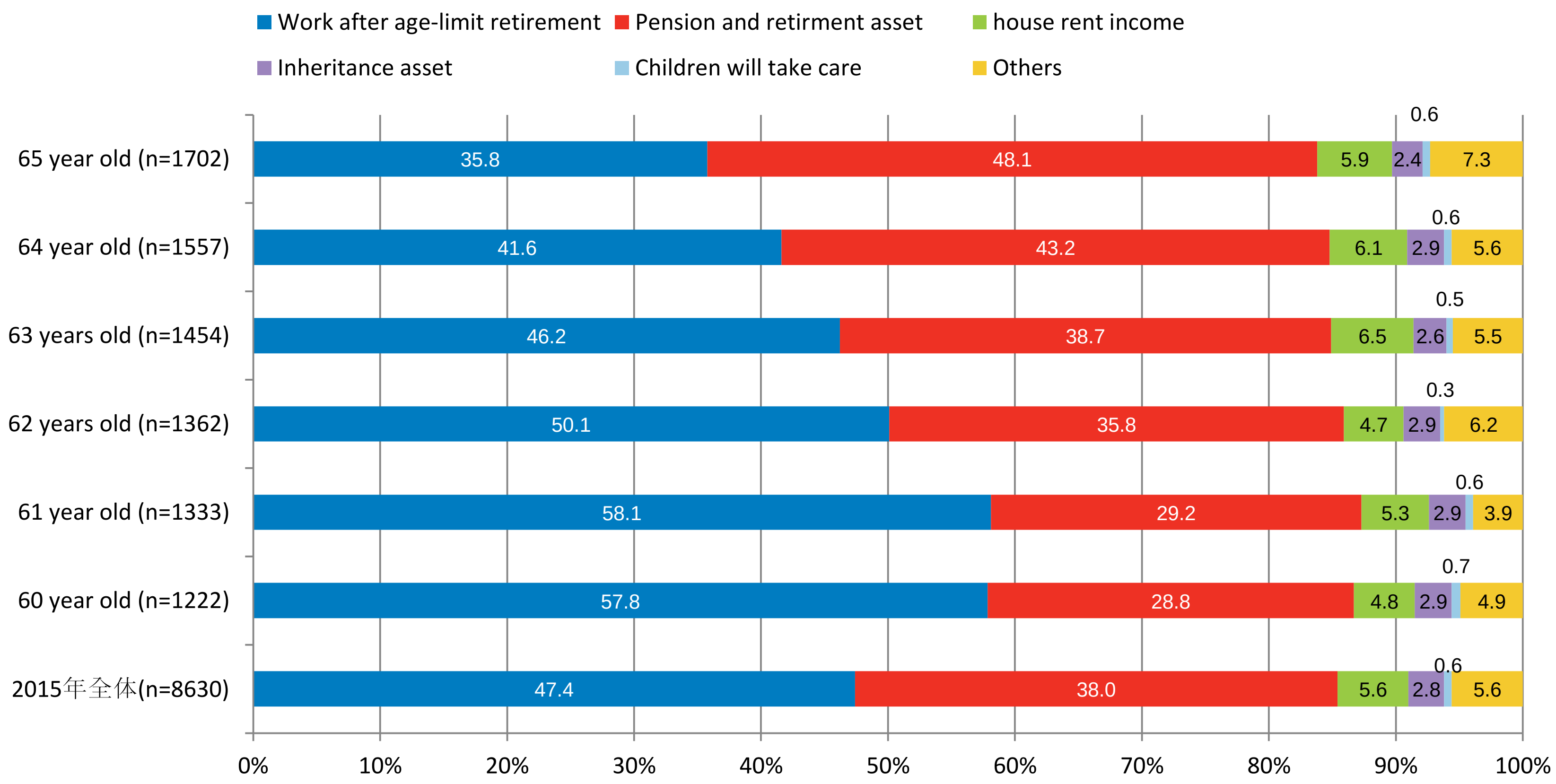
차트 4: 원하는 은퇴자금 사용처

원하는 은퇴자금 사용처	합계 (n=8630) (n=8018)	은퇴 전 연간소득 3백만엔 미만 (n=413) (n=253)	3~5백만엔 (n=1207) (n=904)	5~8백만엔 (n=2936) (n=2407)	8-10백만엔 (n=2243) (n=2288)	10~15백만엔 (n=1490) (n=1742)	15~20백만엔 (n=220) (n=301)	20백만엔 초과 (n=121) (n=123)
대출 혹은 부채 상환	20.8% 20.0%	20.0% 13.0%	19.4% 15.4%	20.5% 21.0%	23.5% 21.5%	19.7% 19.8%	17.3% 19.9%	15.7% 24.4%
정년 퇴직 후 생활비	52.2% 50.4%	49.6% 49.0%	53.2% 50.7%	54.0% 51.4%	49.3% 49.8%	53.4% 50.2%	51.4% 49.8%	52.9% 49.6%
당장 필요한 생활비	37.4% 38.6%	60.5% 46.0%	44.2% 43.0%	35.9% 41.7%	34.9% 35.8%	34.1% 36.3%	30.1% 32.0%	26.6% 31.1%
향후 소득이 부족할 때 필요하게 될 생활비	43.3% 41.9%	26.3% 29.8%	36.9% 38.6%	45.0% 38.9%	45.5% 44.7%	44.9% 45.9%	44.2% 42.0%	56.3% 42.6%
생활비로 쓸 수도 있지만 아직 미정임	19.4% 19.4%	13.2% 24.2%	18.8% 18.3%	19.1% 19.4%	19.5% 19.5%	21.0% 17.7%	25.7% 26.0%	17.2% 26.2%
목돈이 필요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할 자금원	7.4% 9.4%	5.6% 11.5%	8.5% 9.7%	7.2% 9.0%	7.4% 9.7%	7.7% 9.2%	8.6% 10.0%	5.0% 7.3%
개인 취미 등을 위한 지출	5.6% 6.2%	13.1% 15.4%	6.3% 7.7%	4.5% 5.0%	4.9% 6.0%	5.4% 5.9%	11.4% 7.3%	9.9% 4.9%
주택 및 차량을 위한 지출	8.8% 9.6%	5.6% 8.3%	8.6% 10.7%	9.7% 9.9%	9.1% 8.9%	8.4% 10.2%	5.0% 7.0%	7.4% 7.3%
가족 및 자녀를 위한 선물	2.0% 1.5%	2.2% 0.4%	1.2% 1.7%	1.5% 1.1%	2.6% 1.7%	2.3% 1.5%	2.3% 2.3%	5.0% 2.4%
기타	3.1% 2.9%	3.9% 2.4%	2.9% 4.1%	2.8% 2.6%	3.3% 2.4%	3.2% 3.2%	4.1% 3.7%	4.1% 4.1%

주: 위 숫자는 2015년 수치, 아래 숫자는 2011년 수치

정년 퇴직 후에도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음

차트 6: 주요 소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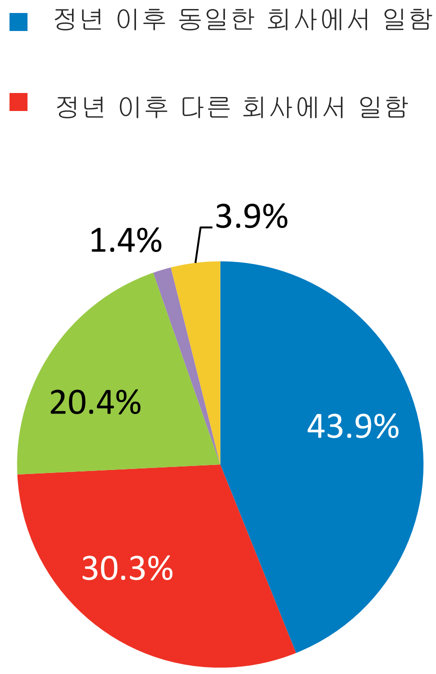


근로소득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

차트 5 : 정년퇴직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가?

	그렇다. 정년퇴직 후에도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렇다. 정년퇴직 이후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렇다. 소득은 작아도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다.	은퇴했다.	기타
60세 (n=1222)	38.1%	15.3%	11.9%	31.6%	3.1%
61세 (n=1333)	35.5%	17.0%	14.3%	30.1%	3.2%
62세 (n=1362)	26.7%	17.6%	14.5%	36.9%	4.3%
63세 (n=1454)	20.7%	16.7%	17.9%	40.6%	4.1%
64세 (n=1557)	17.4%	16.8%	17.0%	43.9%	4.9%
65세 (n=1702)	13.0%	13.7%	17.2%	50.2%	5.9%
합계 (n=8630)	24.3%	16.1%	15.6%	39.6%	4.3%

차트 7: 은퇴 시점에서 주요 소득원이 근로소득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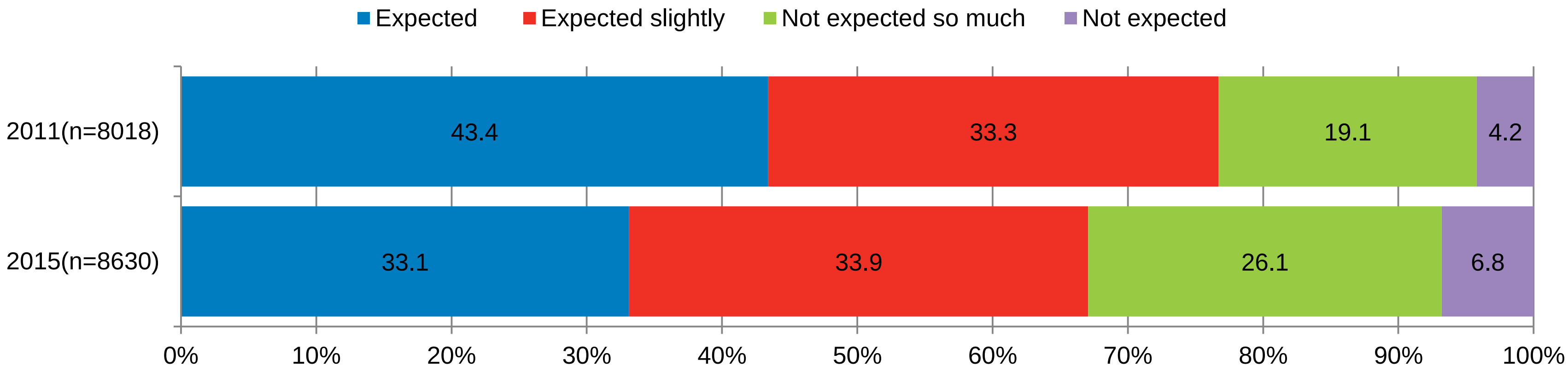
주: 총 응답자 수 4092명

은퇴자 중 2/3는 여전히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차트 8: 은퇴 이후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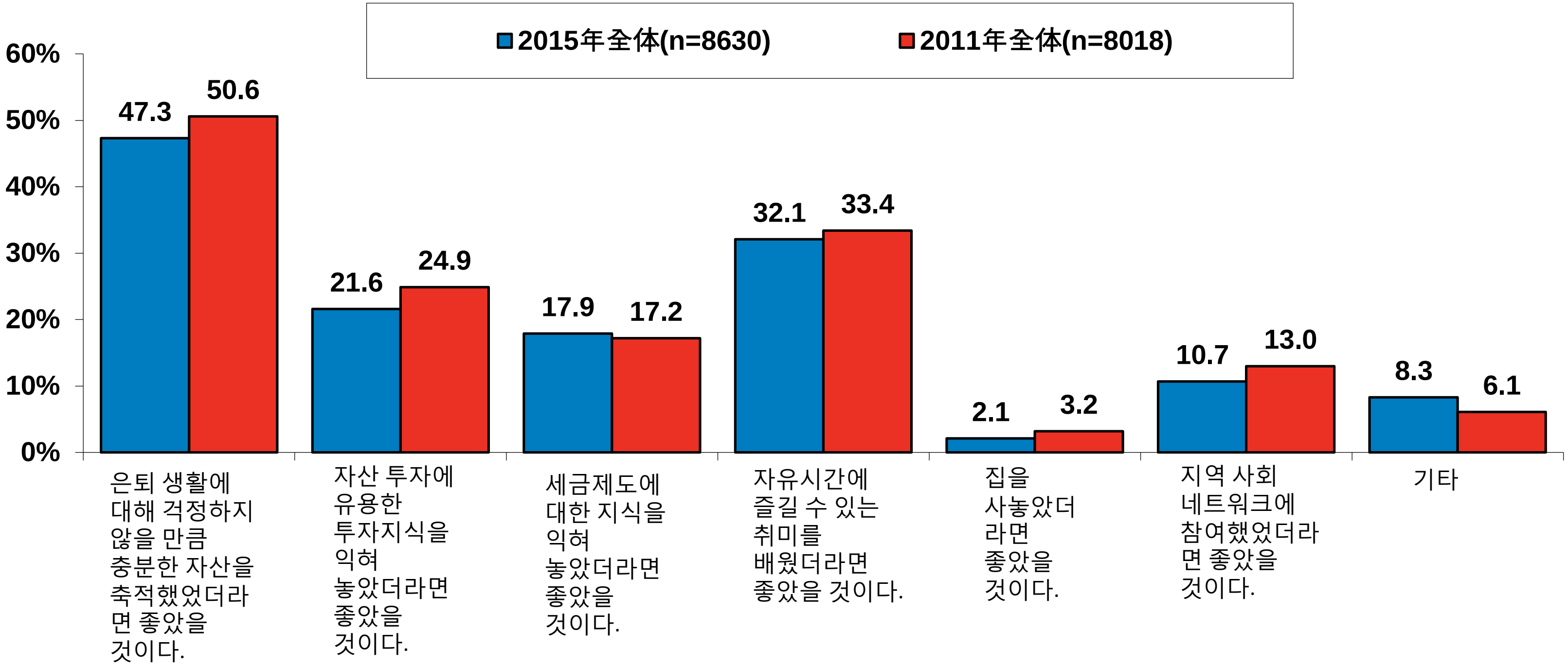
	2015	2011	2008
은퇴소득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답한 응답자 총수	4,714명	4,264명	568명
시간이 흐르면서 자산이 감소하여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산이 부족하게 될 가능성	43.1%	37.5%	28.2%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활비가 현재보다 오를 가능성	17.4%	11.9%	22.9%
의료 및 간호 비용으로 인해 생활이 예상과 달리 생활이 힘들어질 가능성	26.8%	34.5%	38.7%
다른 예상하지 못한 비용으로 인해 생계비가 부족해질 가능성	12.8%	16.2%	10.2%

차트 9: 당신은 국민연금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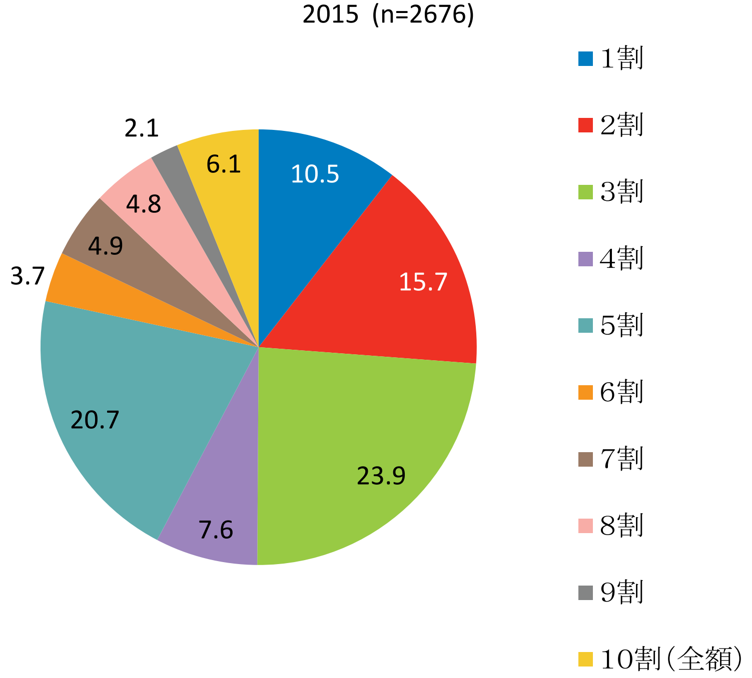
은퇴 전에 충분한 은퇴자산을 모으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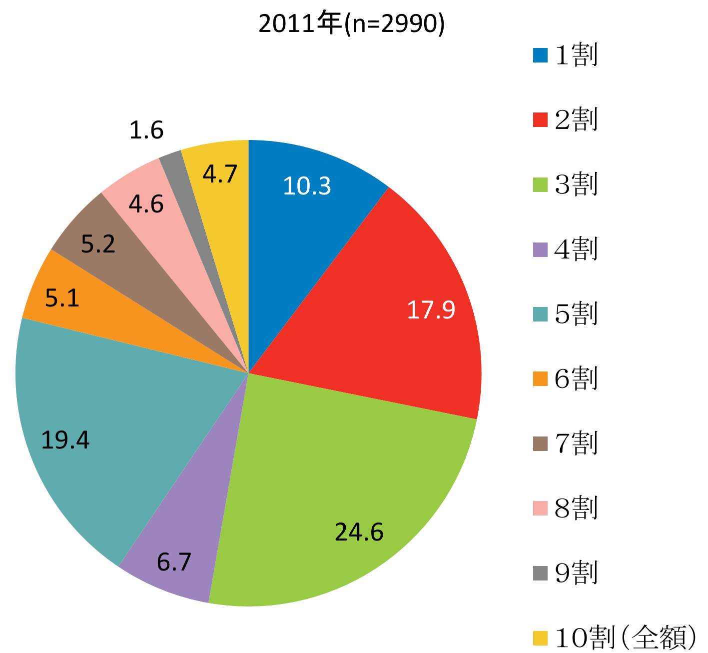
차트 10: 은퇴 전에 준비를 마쳤다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은?



퇴직일시금 중 투자에 사용된 비율에는 변화가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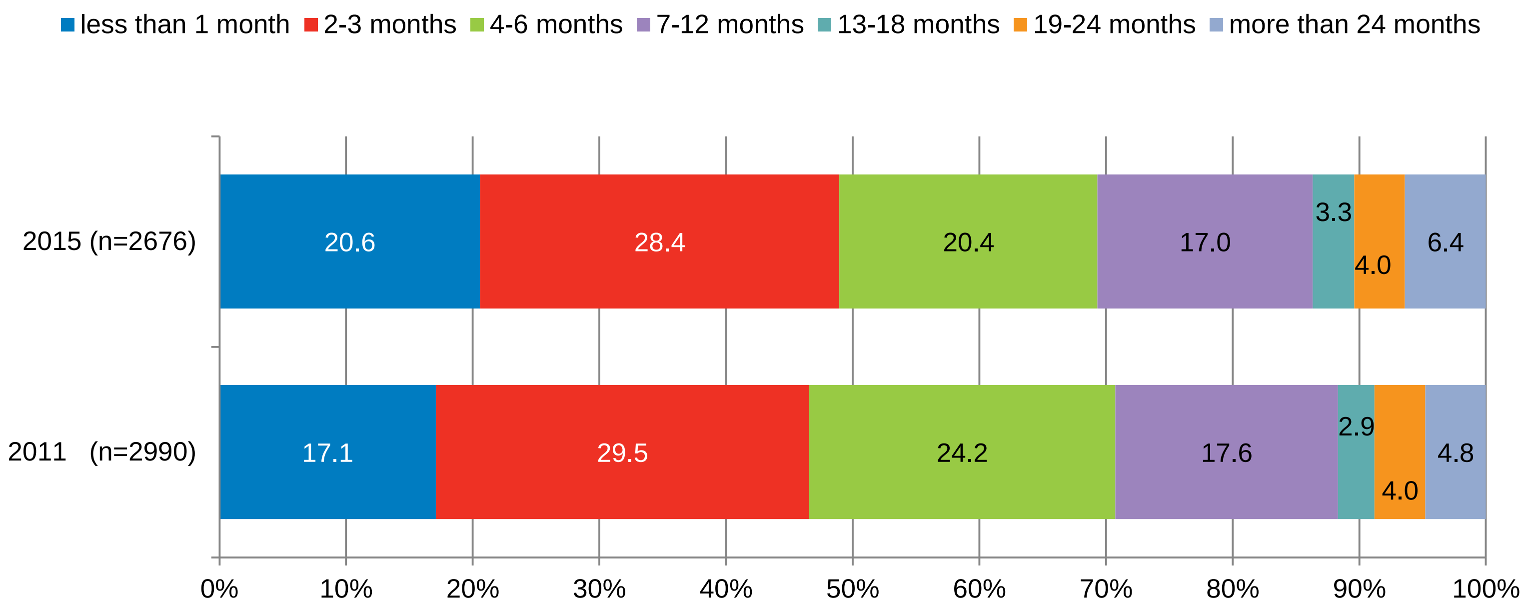
차트 17: 투자에 사용된 퇴직 일시금 비율





투자결정까지 걸린 시간에도 변화가 없어

차트 18: 수령한 퇴직 일시금을 투자할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가?



은퇴자 중 30%는 퇴직금을 수령 받은 은행에 그대로 남겨둠

차트 20: 퇴직 일시금 중 투자에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어떻게 했나?

	2015	2011	2008
	8,630명	8,018명	1,000명
퇴직금을 수령했던 은행에 그대로 두었다.	31.0%	30.3%	34.5%
집에서 가까운 은행으로 옮겼다.	19.2%	13.7%	20.5%
예금금리가 높은 은행에 예금했다.	13.1%	19.0%	18.5%
더 나은 서비스와 조언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옮겼다.	7.1%	7.5%	9.6%
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옮겼다.	6.1%	5.9%	6.6%
기타	4.0%	4.1%	4.2%
모두 소비해서 남아 있는 자금이 없다.	19.6%	19.5%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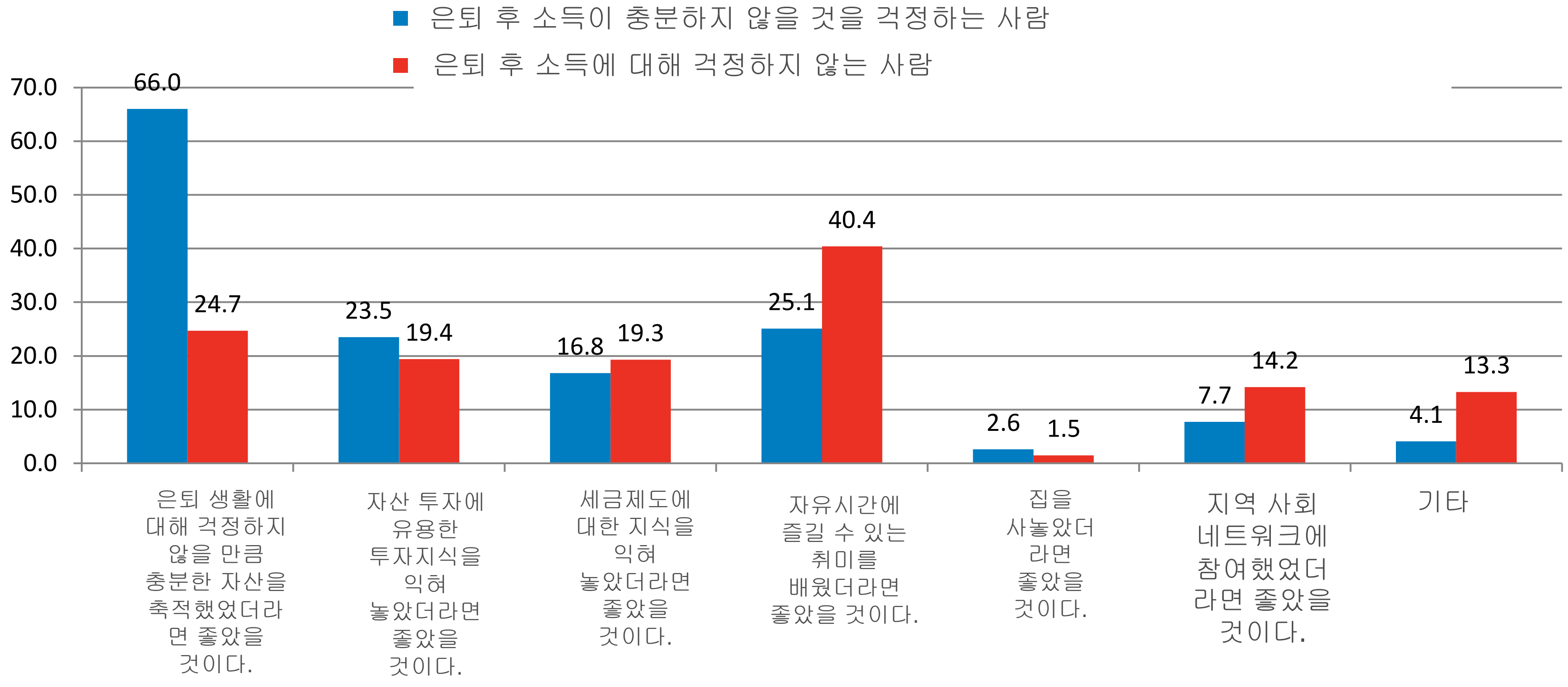
기타 이슈 1
퇴직 일시금을 투자한 은퇴자 중 1/4은 투자경험이 없어

차트 25: 투자경험이 있는 은퇴자와 없는 은퇴자 사이의 격차 커

		은퇴 전 투자 경험이 있으며 은퇴자금을 투자한 은퇴자(응답자; 1984)	은퇴 전 투자 경험이 없으며 은퇴자금을 투자한 은퇴자(응답자: 692)
구성비		공무원 20.7%, 민간기업 근로자 79.3%	공무원 32.5%, 민간기업 근로자 67.5%
은퇴 전 연간소득 평균		9,213천엔	8,572천엔
수령한 퇴직 일시금 평균액수		20. 9백만엔	21.4백만엔
퇴직금을 수령한 은행에 그대로 둔 은퇴자 비율		26.1%	36.3%
투자한 상품	일본 주식	57.1%	32.8%
	월지급식 일본주식투자신탁	27.7%	22.8%
	원지급식 해외채권투자신탁	24.9%	26.9%
	부동산투자신탁(REIT)	20.8%	19.4%

기타 이슈 2
은퇴소득 부족이 고민되지만 해법은 없는 사람

차트 26: 은퇴 전에 준비를 마쳤다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은?



기타 이슈 2
은퇴소득 부족이 고민되지만 해법은 없는 사람

차트 27: 은퇴소득 부족을 고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은퇴소득 부족이 고민되는 응답자 (응답자수: 4,714)	은퇴소득 부족이 고민되지 않는 응답자 (응답자수: 3,916)
정년퇴직 이후에도 일하는 것이 주된 은퇴소득원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		52.2%	41.6%
퇴직 일시금을 시장에 투자한 응답자 비율		27.3%	35.5%
퇴직 일시금 중 투자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했나?	퇴직금을 수령했던 은행에 그대로 두었다.	32.0%	29.9%
	예금금리가 높은 은행에 예금했다.	17.1%	21.6%
	집에서 가까운 은행으로 옮겼다.	14.1%	11.8%
투자한 상품(복수 응답)	일본 주식	48.5%	52.9%
	일본 채권	12.1%	17.3%
	월지급식 일본주식펀드	24.3%	28.4%
	월지급식 해외채권펀드	23.3%	27.3%
	부동산투자신탁(REIT)	16.9%	23.7%
퇴직 일시금을 투자한 이유(복수 응답)	은퇴자금이 충분하지 않다.	28.2%	6.5%
	예금과 투자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25.9%	41.9%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41.2%	46.8%

기타 이슈 2 (계속)
은퇴소득 부족이 고민되지만 해법은 없는 사람

차트 27: 은퇴소득 부족을 고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은퇴소득 부족이 고민되는 응답자(응답자수: 4,714)	은퇴소득 부족이 고민되지 않는 응답자(응답자수: 3,916)
은퇴자금으로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복수 응답)	투자할 만큼 충분한 돈이 없다	19.7%	8.4%
	투자할 이유가 없다	7.8%	20.0%
	손실이 두렵다	44.5%	49.1%
	투자지식이 부족하다	25.0%	18.2%
퇴직 일시금 처리에 대한 자체 평가	적절했다	30.7%	49.4%
	다소 적절했다	38.9%	36.7%
	별로 적절하지 못했다	21.5%	10.1%
	적절하지 못했다	9.0%	3.9%

기타 이슈 3
퇴직금을 생활비로 사용해야 되는 은퇴자와 비상시에 사용하면 되는 은퇴자의 투자 행태의 차이

차트 28: 퇴직 일시금 사용처 및 투자상품

		일본 주식	일본 채권	월지급식 일본주식펀드	해외주식	월지급식 해외채권펀드	부동산투자신탁(REIT)
다음 항목에 퇴직 일시금을 투자한 은퇴자의 비율(총 응답자: 2,676)		50.8%	14.8%	26.4%	6.6%	25.4%	20.4%
원하는 은퇴자금 사용처	은퇴 후 생활비: 1,546명 57.8%	49.4%	15.2%	27.9%	6.1%	27.2%	21.7%
	향후 긴급하게 목돈일 필요한 경우 지출: 232명 8.7%	42.2%	15.9%	25.9%	5.2%	29.3%	16.8%
	대출 및 부채 상환: 377명 14.1%	56.2%	11.9%	21.5%	7.2%	17.5%	14.3%

주의사항

상기 정보는 집합투자기구의 판매나 권유를 위하여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 중 제 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오류 및 생략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정보는 시장의 환경이나 그 외의 상황에 의해 변경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나 허가 없이는 정보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델리티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KM 15-80 (2015.04.06~2015.09.30)